

핸드폰... 신형의 새로운 안내자

길 찾고 보시금 내주고 “뚝뚝하네”



마찬가지이고 찬불가 대중화에도 도움이 되어 신도들에게 자주 권한다'고 말했다.

산사 이렇게 가세요

최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주말에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번도 참배를 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 가기가 쉽지 않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Nate Drive, K-Ways 등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처음 가보는 사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참 홈페이지나 불자 카페 등에 올려놓아 신도들과 공유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 4학년 김지숙양은 “학생회 도반들과 법회를 보고난 이후나 성지순례를 갔을때 사진기가 없으면 주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며 “도반들과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신행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불자들에게 함께 할 것을 권하기도 하는 등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에서도 보시해요

이동통신 3사에서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찬불가 벨소리 통화연결음 불자 자긍심 높여 성지순례 등 활동 사진 공유하며 친목 도모

특히 길이 막히는 도로나 우회도로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행 등으로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등산 애호가들을 위해 등산로가 표시되는 산악용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어 깊은 산속에 위치한 암자 등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최근 출시된 핸드폰들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이제는 일상에서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화되어 있다. 성지순례 등 신행활동 중에서 남기고 싶은 추억이나 신도들간의 친목을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이젠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사

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한미카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사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동비, 불사비, 기도비 등을 계좌이체를 통해 보시할 수 있다.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법당에 접속해 보시를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1~2년내에 모바일 뱅킹이 새로운 보시 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C-NET 조원희 대표이사는 “바쁜 업무로 사찰을 찾지 못할 경우 핸드폰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기도비를 보시한 일이 있다”며 “보시를 함으로써 해서 직접 사찰을 참배하지 않아도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신행활동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핸드폰이 뚝뚝해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에게도 핸드폰은 이제 필수품이다. 사찰을 순례하거나 보시를 하는 등 핸드폰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다.

'나 불자' 알리기

아파트 현관이나 가정집 때문에 보면 어느 사찰에 다니고 있다는 명패를 붙여놓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웃주민들은 명패를 보고 저 집에 사는 사람이 불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핸드폰에서도 내가 불자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핸드

폰의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를 찬불가로 설정해 놓으면 된다. 이동통신 3사의 대표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찬불가를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로 설정할 수 있다. 다운로드를 때 소액의 경비가 들어가지만 한번 설정해 놓으면 내가 불자임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불자로서 자긍심도 높아진다.

법주사 포교국장 카우 스님은 “스님들이나 목실한 불자들에게 핸드폰을 걸었을때 통화연결음으로 반야심경, 천수경, 삼귀의 등이 나오면 기분이 좋다”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으로 찬불가를 설정해 놓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히 포교를 하는 것이나

클릭! 즐겨찾기

조계종 궁금하세요?

온라인 행정 등 6개 메뉴 구성, 산하 단체도 상세히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는 조계종 안내, 조계종 소식, 승가교육, 신도교육실행, 자료실, 온라인 행정 등 6개의 메뉴를 갖고 있다.

각 메뉴에는 세부 메뉴를 통해 조계종은 물론 산하 단체 등도 상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다.

특히 조계종 소식 메뉴에서는 공지 사항이나 보도자료, 언론에 비친 조계종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다.

kr도메인 9월부터 등록, 불교계 관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정보통신부가 2단계 kr 도메인 도입을 위한 ‘도메인 이름관리준칙’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kr 도메인 등록을 개시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kr 도메인은 ‘.co.kr’, ‘.or.kr’ 등에서 ‘co’, ‘or’ 등을 생략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유권 분쟁을 줄이고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2단계 kr 도메인 도입 시 ‘초기등록기간’을 마련하고 정부기관 및 기존 kr도메인 등록자에게

우선 등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초기등록기간이 종료되면 2주간의 ‘동시등록기간’을 거쳐 도메인 등록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중복 신청된 도메인은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단, 사찰 등 기존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 제 단체는 물론 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에서도 kr 도메인에 관심을 갖고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4

배터리 충전 확인 하셨나요

촬영을 위한 준비사항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캠코더 이외에 다른 주변기가 필요하다.

캠코더를 작동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배터리의 충전 여부다. 막상 촬영에 들어갔는데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흔히 범하는 실수임으로 영상 촬영 전에 캠코더를 켜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하다보면 영상이 흔들리는 현상을 누구나 경험한다. 인간의 손으로 캠코더를 잡고 촬영을 하다보니 무거운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떨리게 된다.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형 캠코더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떨림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기기가 바로 삼각대다. 삼각대의 수어답터의 나사를 캠코더 하단부의 나사 구멍에 넣어 조인 이후 수어답터를 삼각대에 고정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어답터를 넣고 그냥 촬영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 수어답터가 없으면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와 더불어 삼각대를 사용할 경우 꼭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삼각대는 가격과 크기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촬영을 위한 필수 장비이므로 하나쯤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캠코더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지만 보다 좋은 소리를 얻고자 한다면 외부 부착용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를 부착해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외부 마이크를 장착한다고 해도 멀리서 소리가 나면 좋은 오디오를 얻을 수 없기에 최근에는 무선 마이크를 많이 사용한다. 무선 마이크는 소형 송·수신기로 작동하는데 송신기와 수신기를 사용해 선명한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다. 다만 소리가 울리는 장소나 소음이 큰 장소에서는 잡음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다.

촬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영상을 녹화하는 테이프다. 최근에 출시되는 캠코더들은 보통 6미리 디지털방식의 비디오 테이프를 주로 사용한다. 디지털 방식의 테이프는 화질이 좋고 여러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P모드와 IP모드가 있지만 화질을 고려한다면 SP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래된 캠코더의 경우 아날로그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8미리 테이프를 사용하며 디지털 방식보다 화질이 떨어진다. 촬영하기에 앞서 비디오 테이프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촬영하다보면 촬영량이 생각보다 늘어나 테이프가 부족해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촬영을 시작할때는 테이프에 30초 정도 컬러바나 검은색 화면을 미리 녹화해 두면 다른 촬영을 할때나 편집할 때 유리하다. 촬영을 마친 테이프는 하단부에 위치한 녹화방지캡을 잠김으로 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누구나 촬영한 테이프를 오래 보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 테이프를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화질이 변형이 생기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도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안된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천연 연꽃 화장품 “蓮”



가격: 48,000원(출시 특별 행사기)

휴탕물에서 고운꽃을 피워내는 우수한 정화능력과 증감속에 대한 저항이 높은 천연에서 정제추출한 연꽃 추출물은 피부에 대한 보호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지속사용 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켜 활기차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한다.



“최고가 아니면 하지않습니다”

시멘트 법당 생산에서 ↔ 완공까지

생 산 품 목

서가래, 부연, 초익공, 이익공, 계자각, 외삼포작, 외삼포/내외포작, 외오포 내칠포작 등 법당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최고의 작품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스님께서 직접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국 불 교 건 축 공 에

서울 중랑구 망우 2동 467-20

대표전화 : 02)494-4890~1

상담전화 : 011-9228-6814